



God's People Krung, Brao in Rattanakiri Cambodia

땡알라? 호그러?(안녕하세요? 행복하십니까?-끄렁어) 캄보디아 라따나끼리 전대식 황영미 선교사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해가 더해 갈수록 라따나끼리의 아름다움과 매력에 빠집니다. 이 땅에서 주님, 동역자님 그리고 이곳 친구들과 함께 춤추며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복있는 공동체는 미전도소수종족인 끄렁&브라오종족의 복음화를 위해 현존하는 미래인 청소년들을 하나님의 사람을 양육하여 종족교회와 사회의 리더로 세우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2012년 7월부터 오늘까지 지난 4년을 주님의 은혜로 달려왔습니다. 5년을 만들어 가는 오늘, '언제쯤 열매를 얻을 수 있을까?' 자문하고 자답해 보기를 원하지만, 아직은 그때가 보이지 않을뿐더러 성공여부를 알 수도 없는 불확실한 일로만 여겨집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꼭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에 오늘도 한걸음 내일도 한걸음 내딛습니다.

주님이 불러 모으셨다는 믿음으로, 주님께서 명령하신 사랑을 나누며, 꺾대를 향하여 손잡고 간다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 않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4년의 시간동안 공동체를 거쳐 간 학생만 15명이 넘습니다. 이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까?' 라는 의문보다 앞선 질문은 '저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말씀을 보며 기도하며 예배에 참석할까? 주님의 이름을 부를까?' 이 질문에 회의적인 대답을 들으면 저희는 절망하며 깊은 회의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바로 이 상태입니다. 15명 모두가 믿음을 버린 것은 아니지만, 보고 듣는 소식에는 60% 이상이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는 동안 나는 무엇을 하였는가? 돈으로 사람을 사고 돈으로 믿음을 샀는가? 그들은 단지 이곳에서 머무는 동안에만 믿음이 있는 척 하였던 말인가? 그러면서 이것을 선교라고 한국교회에 보고해 왔던 말인가?' 주님 저희가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절망 속에서도 기도하며 소망하는 것은, 이들이 지금은 비록 세속인으로 살지만 언젠가 공동체에서 읽었던 말씀, 암기했던 말씀을 성령님께서 사용하셔서 다시 주의 백성으로 부르실 때에 진정으로 회심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소파, 공동체의 리더로 2년 반을 섬기면서 교회 개척, 마을 전도 그리고 자립을 위한 사역에 함께 해 왔던 귀한 친구였습니다. 영어를 잘 해서 사립초등학교에 교사로 취직을 해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3월 저희가 한국을 방문하고 있을 때, 리더로서 어린 동생들을 잘 돌보아주기를 바랬지만, 저희가 떠난 지 며칠 되지 않아 공동체를 스스로 떠났습니다. '무엇이 그를 떠나게 했을까?' 이번이 두 번째였습니다. 작년 9월에도 공동체를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소파는 나이가 24살이라 마을에 살았다면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고 아이가 2-3명은 있었을 것입니다. 최소 가정에 경제적인 도움을 주어야 할 나이입니다. 현실적인 괴리감과 미래에 대한 걱정이 공동체를 버리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이미 저희가 경제적으로는 이 나라 초등학교 선생님의 월급으로 대우를 해 주었고, 시장에 분양받은 상가가 오픈하면 그곳에서 일하기로 이미 약속한 상태였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공동체와 약속을 다 버리고, 공동체에 구속되지 않고 자신의 능력으로 자유롭게 살겠다는 내적 욕망을 따라 간 것이 아니었을까 추측해 봅니다. 지금은 학교도 그만두고 관광객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공동체에 들어오고 싶다는 의향을 전해왔지만, 확연히 회심한 모습을 보여 주어야만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정으로만 받아들이었다면 이러한 일이 반복되고 다른 지체들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소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르언, 공동체 시작부터 함께 해 왔던 학생으로, 종족마을에서 나름 부잣집 늦둥이 막내로 자라 사랑이 넘치고 저희의 비서가 되기로 웃으면서 약속했던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4년이라는 시간이 공동체 생활에



익숙해지다 못해 싫증이 나고 사귀고 있는 여자 친구와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야간 외출을 금하는 공동체 규칙이 자신을 억압한다고 생각했는지, 지난 7월 중순에 뒤통도 돌아보지 않고 나갔습니다. 4년을 돌보아준 은혜는 어디에 갔는지 인사 한마디 없었고 그 부모 또한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2년 전에 학교에서 놀다가 오른쪽 팔꿈치 뼈가 깨져서 아프다고 살려달라고 할 때, 베트남에 가서 수술도 시켜주었습니다. 학교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부모님을 모셔오기 부끄럽다고 저희가 부모가 되어 학교에 가서 해결해 달라고 해서 학교 선생님께 드릴 선물(?)을 준비해서 찾아가 해결해 주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공동체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학생이었는데...황영미선교사는 떠나보내고 일주일을 앓아 누었습니다. 공동체 사역의 허무함을 보았습니다. 르언은 공동체를 나간 모든 친구들이 다시 공동체로 돌아오고 싶다는 말을 듣고 저희에게 전한 연락병 같은 친구였습니다. 누구보다도 공동체가 좋다는 것을 알고 있는 이 친구가 아무런 미련 없이 공동체를 버리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저희의 사역 방향과 내용을 되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사랑에 비하면 저희가 준 사랑은 먼지만도 못하다는 것을 알기에 그 사랑 앞에 다시 엎드립니다. 르언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저희가 탕자를 기다리는 아비가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현재 공동체는 5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응웬이 눈에 보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남다른 은사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하루가 다르게 말씀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 새벽기도 시간에는 본문을 읽고 요약을 하고 자신이 배운 점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젠 공동체 최고 연장자입니다. 모든 면에서 술선수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 보입니다. 저희가 자리를 비울 때에는 동생들을 독려하면서 새벽기도를 인도했다는 말을 듣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지난 두 주 전에는 방송국 가요 콘서트 예비심사에 나갔다가 고베를 마셨다며 웃으며 들어오는 모습도 대견해 보였습니다. 응웬이 이기적인 성품을 버리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말씀의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공동체의 지도자로서의 리더쉽을 갖추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에사이는 3개월간의 방황기를 끝내고 다시 공동체에 들어왔습니다. 많이 바뀌었습니다. 모든 일에 정신차리고 임하는 것이 보입니다. 다음 주(8월8일)에 고입시험을 앞두고 열공하는 모습을 보면 저 아이가 옛날의 에사이 맞는가? 라는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새벽기도 시간에 '너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냐?' 라는 질문에 '반만 사랑한다'는 대답으로 웃음을 주기도 했습니다. 에사이가 주님이 주신 비전을 보고 달려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성실한 학생이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사무엘, 시우퍼우, 학. 이 세 명의 학생은 열심히 생활합니다. 학교에서 부족한 실력으로 공부 잘 하는 어린 동생들과 경쟁하며 공부하지만 전혀 주눅 들지 않습니다. 방과 후에는 영어공부도 합니다. 단어 시험을 본다고 틀린 철자를 외우는 것을 다시 다 고쳐주기도 했습니다. 시우퍼우는 학교에 갈 때 사탕을 가지고 가서 어린 동생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인심을 사는 모습을 보고 한참을 웃었습니다. 어린나이에 공동체에 들어왔습니다. 참으로 대견합니다.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왔습니다. 이 학생들에게 공동체가 하나님 축복의 통로였음을 고백할 날이 오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공동체에 새로운 지체를 받으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학생으로 까뻍입니다. 품파남(다음 교회 개척지) 출신으로 몇 개월 전부터 센터에서 10분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누나 가족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시우퍼우와 학교 친구입니다. 현재는 토요일 공동체 예배에만 참석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공동체에 들어오고 싶은데 아버지와 누나가 결사반대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그들은 철저한 샤머니즘 신봉자이기 때문입니다. 까뻍은 기독교계통 NGO에서 일하는 매형과 함께 시내에 있는 교회 예배에 가끔 참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까뻍이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께 이곳에 원하시는 공동체 모습을 만들기 위해 간구하고 있습니다(리모델링). 다른 선교사님 공동체 사역을 리서치하고, 교회사에 나타난 공동체를 다시 공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에 사랑으로 양육하는 어버이가 되며, 지혜로운 선생이 되어 주님께서 예비한 길로 인도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 실수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으며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가정과 사역에 넘치기를 간구합니다. 샬롬**